참고 자료

《국전》 사진부 관련 참고 자료 목록

《국전》 관련 참고 자료 목록

※ 『《국전》 사진부 자료집』에 실린 자료를 제외한 《국전》 사진부 관련 자료 및 《국전》 전반에 관한 참고자료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일간지

임응식, 「(나의 제언) 《국전》에 사진부를」, 『조선일보』, 1955.8.30.

「(물방울)」, 『동아일보』, 1956.2.4.

「미술계 내분의 단면」, 『동아일보』, 1956.10.7.

이안순, 「사진의 문화적 위치, 종합전에도 사진부를 두도록」, 『경향신문』, 1956.11.15.

임응식, 「《국전》과 사진부」, 『문총회보』, 1957.2.12.

「건축 사진, 문화도 향상목표, 《국전》 개최 신규정 마련」, 『조선일보』, 1957.3.31.

「같은 길을 가는 부부 (5) 사진 정도선(41) 김선옥(39) 부부」, 『동아일보』, 1957.4.6.

「사진부도 두기로 미술분위서 결정」, 『경향신문』, 1957.6.14.

「미술분위서 설치합의, 《국전》에 사진부」, 『조선일보』, 1957.6.14.

「예술원상 수상자 결정」, 『경향신문』, 1957.6.25.

「(탁목조(啄木鳥))」, 『경향신문』, 1957.6.26.

이명동, 「사진의 예술성, 《국전》의 사진부 설치 문제」, 『동아일보』, 1957.7.27.

구왕삼, 「경북지역문화 1년의 회고 1957」, 『매일신문』, 1957.12.22.

「사진예술 단독 《국전》 개최? 사협에서 강경한 태도를 표명」, 『문화시보』, 1958.7.4.

「(모일모시(某日某時))」, 『경향신문』, 1958.8.4.

「대한사연 임원개선」, 『경향신문』, 1960.6.2.

「예술가와 생업가의 구별」, 『경향신문』, 1960.6.30.

구왕삼, 「6 25 10년 ⑤ 사진, 활기 띤 해외 진출」, 『매일신문』, 1960.6.30.

「《국전》은 개혁되어야한다」, 『동아일보』, 1960.7.23.

「예술계 갈등이 원인, 《국전》 반입작품 겨우 63점」, 『조선일보』, 1960.9.13.

「구라파 1주의 특전도, 《국전》 입상자 상금 최종 결정」, 『경향신문』, 1961.12.13.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2.1.9.

정희섭, 「《국전》에 사진 부문 추가는 당연, 문교부 장관의 고려설을 듣고」, 『동아일보』, 1963.4.12.

「사진 부문 《국전》 참가 예총서 당국에 건의」, 『경향신문』, 1963.5.7.

「10월 10일부터 올해 《국전》, 9월 23일부터 작품반입」, 『경향신문』, 1963.5.18.

「"사진" 부문도 《국전》에 추가를」, 『동아일보』, 1964.6.25.

「《국전》에 사진 부문도 예술원 정총서 가결」, 『동아일보』, 1964.6.27.

「사진부 추가 건의 사협서 《국전》에」, 『경향신문』, 1964.6.27.

「제13회 《국전》 10월 16일부터 한 달 경복궁서」, 『동아일보』, 1964.8.19.

「출품료에 비난 《국전》 사진 부문 첨가」, 『경향신문』, 1964.8.19.

「《국전》에 사진부, 올해부터 신설」, 『조선일보』, 1964.8.19.

임응식, 「(시론) 《국전》 사진부 신설에 제(際)하여」, 『홍대신문』, 1964.8.20.

임응식, 「사진예술의 과제, 《국전》에 사진가입을 경하하며」, 『동아일보』, 1964.9.2.

「'한국창작사진협회' 발족, 《국전》에 대비 재야중견들 중심으로」, 『조선일보』, 1964.9.2.

「《국전》 앞둔 사진계, 채점받는 사진작가들」, 『경향신문』, 1964.9.9.

「《국전》 "출품료 징수는 부당", 미협서 건의문」, 『동아일보』, 1964.9.15.

「《국전》 출품료 안 받기로」, 『경향신문』, 1964.9.26.

「《국전》의 문제점」, 『동아일보』, 1964.9.29.

「오늘 《국전》 마감 사진 부문 첫 선 150점」, 『경향신문』, 1964.10.7.

「《국전》 마감, 총 2134점, 대체로 작년보다 저조」, 『조선일보』, 1964.10.7.

「《국전》 출품, 모두 2천 166점, 마감 어제 작년보다 줄어」, 『동아일보』, 1964.10.8.

「두 심사위원 사양」, 『동아일보』, 1964.10.8.

「2명이 사퇴 사진 부문 심위원」, 『경향신문』, 1964.10.9.

「《국전》 출품작 심사를 시작」, 『동아일보』, 1964.10.9.

「《국전》 사진 공예부 덕수궁에서 전시」, 『조선일보』, 1964.10.10.

「《국전》 입선작」, 『동아일보』, 1964.10.12.

「《제 13회 국전》, 일부 입선작 선정」, 『경향신문』, 1964.10.12.

「수는 줄었으나 질은 향상 《제 13회 국전》 특선작만 75점 입선작 6백 18점」, 『동아일보』, 1964.10.12.

「"영예의 산실" 안팎, (사진) 처음부터 풍파, 수준은 높은 편」, 『동아일보』, 1964.10.13.

「사진부 심사위의 차질, 임응식 강사 《국전》 심사위원을 보이콧」, 『홍대신문』, 1964.10.15.

「《제13회 국전》 심사위원, 본대학 교강사 11명에 위촉, 심사위원장에 이종우 교수」, 『홍대신문』, 1964.10.15.

「(사설) 《국전》의 개막」, 『홍대신문』, 1964.10.15.

「또 한 번 《국전》을 맞이하면서」, 『조선일보』, 1964.10.15.

「《국전》 심위의 편파성 한국미협서 지적」, 『조선일보』, 1964.10.17.

「《국전》 심위 규정 제정」, 『경향신문』, 1964.11.6.

「《국전》 사진부 시정사항, 창협서 관계처에 건의」, 『홍대신문』, 1965.8.10.

「《국전》 앞으로 5주 출품료 심사원 등 문제점을 살펴본다」, 『동아일보』, 1965.9.9.

「《국전》 심사위원 49명 명단 발표」, 『경향신문』, 1965.10.5.

「심사위원 49명 발표 《제14회 국전》」, 『동아일보』, 1965.10.5.

「《제14회 국전》의 개막에 즈음하여」, 『조선일보』, 1965.10.16.

「《제14회 국전》 총평, 위축된 창의력」, 『중앙일보』, 1965.11.13.

「《제15회 국전》 내일부터 작품반입」, 『동아일보』, 1966.9.23.

「심사위원 결정 《제15회 국전》」, 『경향신문』, 1966.9.28.

「《국전》 심사위원 결정」, 『동아일보』, 1966.9.29.

「《15회 국전》 입선작 발표 서양화 등 7개 부문에 654점 전시」, 『경향신문』, 1966.10.7.

「15회 대통령상에 조각 〈해울〉」, 『조선일보』, 1966.10.8.

「낡은 미학에서 탈피하라—《제15회 국전》에 붙인다」, 『경향신문』, 1966.10.10.

「《제15회 국전》 개막」, 『동아일보』, 1966.10.11.

「《제15회 국전》의 개막과 예술의 전진적 자세」, 『조선일보』, 1966.10.14.

이명동, 「(스케치) 권위 잃은 《국전》 사진부」, 『동아일보』, 1966.10.22.

「(단신) [《국전》 정상화 건의]」, 『주간한국』, 1967.8.20.

「(문화단신) 《국전》에 추천작가 두도록, 창작사협, 문교부에 건의」, 『한국일보』, 1967.8.20.

「《국전》 사진부 정상화, 창작사진협서 건의」, 『동아일보』, 1967.8.22.

「심사위원 다시 선정을, 창작사진협서 《국전》 정상화 건의」, 『대한일보』, 1967.8.24.

「《16회 국전》 10월 개막」, 『동아일보』, 1967.8.26.

「(시민 가이드)《제16회 국전》 작품 접수」, 『경향신문』, 1967.8.28.

「《국전》 13일부터 접수」, 『경향신문』, 1967.9.12.

「사진 등 줄이어 《국전》 출품작 접수」, 『경향신문』, 1967.9.13.

「심사위원 43명 선출」, 『경향신문』, 1967.9.20.

「대통령상에 김진명 씨 서양화 〈화실〉 《제16회 국전》」, 『동아일보』, 1967.9.23.

「《제16회 국전》 입선자 명단」, 『동아일보』, 1967.9.23.

「《국전》과 시상의 형식화」, 『동아일보』, 1967.9.25.

「《국전》 상 10배로, 올해부터 적용」, 『경향신문』, 1967.9.27.

「국향(菊香) 속에 핀 《국전》」, 『경향신문』, 1967.9.30.

「《국전》 내막」, 『경향신문』, 1967.10.16.

「《국전》, 격년제로」, 『경향신문』, 1968.9.3.

「현역작가로 구성 《17회 국전》 심위위」, 『매일경제』, 1968.9.3.

「'《국전》'을 격년제로 한해는 국제전 개최」, 『매일경제』, 1968.9.3.

「10월 5일부터 《국전》」, 『동아일보』, 1968.9.3.

「《국전》 격년제로, 국가서 수상작품 전부 매입」, 『동아일보』, 1968.9.3.

「《국전》 운영 쇄신의 방향」, 『경향신문』, 1968.9.4.

「《국전》개혁론」, 『경향신문』, 1968.9.4.

「권위 있는 《국전》을」, 『동아일보』, 1968.9.5.

「《국전》 혁신의 문제점」, 『조선일보』, 1968.9.5.

「홍 문공장관 담 《국전》 격년제 않는다」, 『경향신문』, 1968.9.6.

「올해 《국전》 심사위원 45명 선정」, 『경향신문』, 1968.9.14.

「《국전》 심사위원장 도상봉 씨 선출」, 『경향신문』, 1968.9.19.

「《17회 국전》 특 · 입선자」, 『경향신문』, 1968.9.28.

「'《국전》' 개막」, 『매일경제』, 1968.10.5.

「《17회 국전》 시비, 남관 분위장 사퇴의 변」, 『동아일보』, 1968.10.8.

「아집 몰이해의 풍토」, 『동아일보』, 1968.10.8.

「영화행정(映畵行政) 난맥 추궁 문공부 국감」, 『동아일보』, 1968.10.11.

임영방, 「《국전》 총평, 대체로 예년 수준, 수확은 〈초토(焦土)〉 〈핵F90〉」, 『경향신문』, 1968.10.23.

「잘 팔리는 《국전》 출품작들 문공부 '지원 기간'까지 설정」, 『경향신문』, 1968.11.9.

「(장관 잘 돼갑니까) 국감 · 예산심의에 비친 행정의 허점(6) 문화공보부」, 『경향신문』, 1968.11.13.

「《17회 국전》 입선작 102점 팔려」, 『동아일보』, 1968.11.19.

「《18회 국전》, 10월 8일부터 한 달」, 『동아일보』, 1969.6.3.

「《국전》 10월 8일 개막, 경복궁미술관서 한 달 동안」, 『동아일보』, 1969.8.9.

「연례 말썽, 《국전》 심사제도 개혁」, 『조선일보』, 1969.8.29.

「《국전》, 10월 8일께」, 『경향신문』, 1969.8.30.

「《제18회 국전》, 달라질 점과 그 문제점」, 『조선일보』, 1969.8.31.

「올 《국전》 추천작가 189명 확정」, 『동아일보』, 1969.9.2.

「미술행정 미술인에 자문」, 『동아일보』, 1969.9.6.

「《국전》 연기」, 『경향신문』, 1969.9.9.

「《국전》 10월 20일로 연기」, 『동아일보』, 1969.9.9.

「'《국전》' 연기 10월 20일로」, 『매일경제』, 1969.9.9.

「《국전》 심사에 신풍(新風)을」, 『경향신문』, 1969.9.10.

「말썽 많은 《국전》 심사」, 『동아일보』, 1969.9.11.

「《국전》 심사위원 선정에 진통」, 『경향신문』, 1969.9.20.

「딜레머에 빠진 《국전》 개혁안」, 『경향신문』, 1969.9.27.

「《국전》 심사를 공개」, 『조선일보』, 1969.9.30.

「국립현대미술관 자문위 15명 선정」, 『동아일보』, 1969.10.1.

「각의서 의결, 《국전》 심사위 폐지」, 『조선일보』, 1969.10.1.

「《국전》 심사 잇딴 혼선, 화단 계보 싸움 여전, 행정 갈광질광, '개혁'도 수포로」, 『동아일보』, 1969.10.2.

「운영자문위 결성 국립현대미술관」, 『매일경제』, 1969.10.3.

「새 얼굴의 《국전》을」, 『동아일보』, 1969.10.7.

「《국전》 심사위원 40명 추천」, 『경향신문』, 1969.10.9.

「《국전》 심사위원 확정」, 『동아일보』, 1969.10.9.

「《국전》 심사위원 40명 선출, "운영자문위원 겸임 못한다" 원칙 깨뜨려」, 『조선일보』, 1969.10.9.

「우울한 '미술의 가을', 개혁위 잡음에 말려」, 『조선일보』, 1969.10.11.

「《국전》 심사 비공개로」, 『조선일보』, 1969.10.12.

「《제18회 국전》 입선작 총 420점」, 『동아일보』, 1969.10.15.

「《제18회 국전》 심사 완료를 보고」, 『조선일보』, 1969.10.16.

「국전제도연구위원 예총·예술원에 의뢰」, 『경향신문』, 1969.12.17.

「연구위 구성키로 《국전》 말썽 없애게」, 『매일경제』, 1969.12.18.

「총평 《제18회 국전》, 수상작품을 중심으로」, 『조선일보』, 1969.10.23.

「《국전》-문화예술상 제도연구위 구성」, 『조선일보』, 1970.1.18.

「《국전》 문예상 제도연구위 발족」, 『경향신문』, 1970.1.21.

「《국전》 제도연구위 시안 미술계서 큰 반발」, 『동아일보』, 1970.5.26.

「《국전》 운영 공청회 9일, 기독교회관」, 『경향신문』, 1970.7.7.

「"사진·건축은 제외, 대통령상은 기성에게만" 9일 공청회 《국전》 운영 개혁안」, 『경향신문』, 1970.7.8.

「《국전》 개혁안의 전면재고 요구」, 『조선일보』, 1970.7.10.

「건축·사진 제외는 국제관례 무시한 것」, 『경향신문』, 1970.7.10.

「(여적(餘滴))」, 『경향신문』, 1970.7.11.

「'《국전》 운영 초안'에 거센 반론, 9일 공청회서 나온 문제점」, 『동아일보』, 1970.7.11.

「《국전》 운영 초안 수정」, 『동아일보』, 1970.7.17.

「문공부에 넘겨진 제도위의 '쇄신 초안' 《국전》의 새 불씨」, 『동아일보』, 1970.7.18.

「진통 겪는 《국전》 개혁안」, 『경향신문』, 1970.7.24.

「《국전》 개혁안 매듭」, 『조선일보』, 1970.7.25.

「《국전》 운영안 수정 확정 제도연구위」, 『동아일보』, 1970.7.25.

「《국전》 개혁안, 사진·건축·공예 분리」, 『경향신문』, 1970.7.25.

「역풍 만난 《국전》 개혁안, 공예 건축 사진 분리 조항에 큰 반발 "세계 미술 사조 외면한 독선 가치 개념에 혼동만"」, 『경향신문』, 1970.7.28.

「개혁안대로 잘 안 될 올해 《국전》」, 『조선일보』, 1970.7.29.

「《국전》 운영위원 15명 위촉 발표」, 『경향신문』, 1970.8.1.

「《국전》 운영위원 위촉, 비미술인 4명-미술인 11명」, 『조선일보』, 1970.8.1.

「《국전》 운위 2차 회의, 공예 다시 넣기로」, 『동아일보』, 1970.8.11.

「《국전》 심사규정안 마련」, 『조선일보』, 1970.10.10.

이일동, 「《국전》과 구설수」, 『조선일보』, 1970.10.16.

「내년 봄에 제2 《국전》, 사진 건축 부문 최고상제로」, 『경향신문』, 1970.12.7.

「사진·건축 부문 전시회 4월중 개최 예정」, 『동아일보』, 1971.1.11.

「《국전》 개관일자를 10월 10일로 고정」, 『동아일보』, 1971.1.20.

「《국전》서 독립한 두 부문 《건축 및 사진전》」, 『동아일보』, 1971.8.23.

「심사위원 발표 《대한민국 건축 사진전》」, 『동아일보』, 1971.8.30.

「대상에 〈민족통일-광장〉 〈북악설경〉, 《제1회 대한민국 건축 사진전》 입상작 결정」, 『동아일보』, 1971.8.30.

「첫 《건축·사진전》의 언저리 기대 못 미친 독립전」, 『경향신문』, 1971.8.31.

「건축-〈민족광장〉, 사진-〈북악설경〉, 《제1회 국전》 대상」, 『조선일보』, 1971.8.31.

이명동, 「《제1회 건축 사진전》 심사평, 예년의 수준…수작없어 서운」, 『동아일보』, 1971.9.6.

「《국전》과 관계하여 문화정책에 요망한다」, 『조선일보』, 1971.10.3.

「《제2회 건축·사진전》 대통령상에 〈공예공장 있는 마을 계획안〉」, 『경향신문』, 1972.9.5.

「대통령상에 〈공예공장 마을〉, 《2회 건축-사진전》서」, 『조선일보』, 1972.9.6.

「대통령상 〈경주문화센터〉 건축, 《사진-건축전》 입상작 발표… 총리상 〈절규〉」, 『조선일보』, 1973.8.28.

이명동, 「《제3회 사진 국전》을 보고, 권위 잃은 추천 초대 작품」, 『동아일보』, 1973.9.6.

「《국전》 분리 미술계의 반응, 구상-비구상 구분에 관심, 《국전》운영위 "아직 논의단계일뿐"」, 『조선일보』, 1973.9.12.

「"《국전》 출품 그림 크기 줄여" 김 총리 지시, 50~1백호 이내로」, 『조선일보』, 1973.10.23.

「《제23회 국전》 2, 4부 대통령상에 〈부활〉(서양화) 〈새아침〉(사진)」, 『경향신문』, 1974.4.22.

「《국전》 대통령상 2부 유희영 씨 〈부활〉 4부 유정재 씨 〈새아침〉」, 『동아일보』, 1974.4.22.

「《춘계 국전》 영광의 얼굴들」, 『동아일보』, 1974.4.23.

「제23회 2-4부 지상중계, 《춘계 국전》」, 『조선일보』, 1974.4.23.

「'범 화단' 노력 구체화」, 『경향신문』, 1974.4.23.

「《제23회 국전》(제1부, 제3부) 개최 공고」, 미상, 1974.6.〔날짜 미상〕

「《국전》 문제점, '저질' 부른 확충」, 『조선일보』, 1974.9.24.

「현대미술관에 《국전》 운영 이관」, 『조선일보』, 1974.10.4.

「《제24회 국전》 개최 공고」, 『경향신문』, 1975.1.21.

「《국전》 수상 상금 대폭 인상, 대통령상 150만원」, 『조선일보』, 1975.1.21.

「《국전》 2-4부 심사평, 아류풍 탈피 뚜렷한 주체」, 『조선일보』, 1975.4.23.

「《국전》과 미술인의 자세」, 『동아일보』, 1975.4.24.

이일, 「(문화계 30년) 미술-《국전》 통해 민족예술 방향 설정, 재야작가 무대 된 '초대전'」, 『동아일보』, 1975.8.18.

「오늘의 미술문화와 《국전》」, 『동아일보』, 1975.10.2.

「'문화의 달'에 보내는 공개상, 한국문화 이대로 좋은가 〈1〉《국전》」, 『조선일보』, 1975.10.5.

「《봄 국전》 5월 3일 개막, 문공부 실시계획 확정」, 『매일경제』, 1976.2.7.

「4대 《국전》 운영위원 23명 위촉」, 『경향신문』, 1976.3.17.

「《국전》 운영위원 위촉」, 『동아일보』, 1976.3.17.

「(미술) 《국전》운영에 바라는 미술계의 소리, "공개심사로 일반에 참여의식을…"」, 『중앙일보』, 1976.3.19.

「《국전》 공개심사제로, 문공부 올봄부터 잡음 등 없애기 위해」, 『경향신문』, 1976.4.17.

「《국전》 심사 공개로, 올봄부터…평론가 등 초청입회」, 『동아일보』, 1976.4.17.

「(사설)《국전》 심사의 공개」, 『동아일보』, 1976.4.19.

「공개심사제가 실시되면…'잡음' 해소에 도움 '압력' 배제가 열쇠」, 『동아일보』, 1976.4.19.

「화단 발전에의 자극제 《국전》 공개심사의 뜻과 문제점」, 『경향신문』, 1976.4.19.

「전기(轉機) 맞은 혁신 《국전》, 21일 막 올린 첫 공개심사」, 『신아일보』, 1976.4.21.

「《봄 국전》 첫 공개심사의 현장 '공정'을 겨누는 눈과 귀」, 『경향신문』, 1976.4.22.

「관심 속에 진행되는 《국전》 첫 공개심사」, 『동아일보』, 1976.4.22.

「《봄 국전》 입상작 결정 대통령상 〈옛 이야기〉(공예부문 이혜선 작)」, 『동아일보』, 1976.4.23.

「《25회 봄 국전》 대통령상 공예 〈옛 이야기〉 이혜선 작」, 『경향신문』, 1976.4.23.

「공개심사장 낙수」, 『경향신문』, 1976.4.24.

「《봄 국전》 5월 3일~31일 미술관서 입선작품 2백 38점」, 『경향신문』, 1976.4.24.

「《봄 국전》 개막 현대미술관서」, 『매일경제』, 1976.5.3.

「'문화의 달'에 보내는 공개상, 한국문화 이대로 좋은가 〈2〉《국전》이 걸어온 길」, 『조선일보』, 1976.10.6.

「'문화의 달'에 보내는 공개상, 한국문화 이대로 좋은가 〈3〉《국전》의 인맥」, 『조선일보』, 1976.10.7.

「'문화의 달'에 보내는 공개상, 한국문화 이대로 좋은가 〈4〉《국전》의 추태」, 『조선일보』, 1976.10.8.

「'문화의 달'에 보내는 공개상, 한국문화 이대로 좋은가 〈4〉《국전》의 진로」, 『조선일보』, 1976.10.9.

「구상·비구상 가을에 함께」, 『경향신문』, 1977.1.20.

「획기적 개혁 앞둔 사전포석 《국전》 운영 변경의 배경」, 『경향신문』, 1977.1.20.

「구상·비구상을 통합 문공부 《국전》 운영제도를 일부 변경」, 『동아일보』, 1977.1.20.

「구상·비구상 가을에 동시 전시-문공부 《국전》 개편 서예-공예-건축-사진은 봄에」, 『조선일보』, 1977.1.20.

문선호, 「설자리 찾은 '중간작품' 《국전》 개선'과 반향」, 『동아일보』, 1977.1.21.

「구상, 비구상 없앨 수 없나, 《국전》 운영방법 개선에 붙여」, 『부산일보』, 1977.1.21.

「개선을 향한 첫발, 《국전》 운영방식 변경의 허와 실」, 『국제신문』, 1977.1.23.

「미술인들의 반성이 아쉽다, 《국전》 제도의 변경을 보고」, 『동아일보』, 1977.1.24.

「근대미술사 정립, 1~26회 《국전》 수상작품 전시」, 『강원일보』, 1977.1.30.

「문공부 일정 확정 《봄 국전》 5월 2일부터 《가을 국전》 9월 30일부터」, 『동아일보』, 1977.1.31.

「봄 5월 2일·가을 9월 30일 문공부, 올해 《국전》 개최 일정 확정」, 『동아일보』, 1977.2.1.

「《봄 국전》 출품작 1400점 "작품 수준 예년보다 향상된 듯"」, 『경향신문』, 1977.4.21.

「《국전》 사진 부문 분규-심사, 출품거부 속출」, 『서울일보』, 1977.4.22.

김조현, 「(심사평) 질양(質量)서 좋아지고 소재 취급도 진지」, 『경향신문』, 1977.4.23.

「《제26회 봄 국전》 국무총리상 권창륜 작 서예 〈고의〉」, 『조선일보』, 1977.4.24.

「초라해진 《국전》」, 『조선일보』, 1977.4.24.

「시들하고 허전한 《봄 국전》」, 『한국일보』, 1977.4.24.

「(낙서함) '건축' 출품작 고작 12점…'사진'선 잡음 일어 5명만이 심사에, 3시간 30분간의 마라톤 회의서도 결국 "대통령상감 없다"

결론」, 『경향신문』, 1977.4.25.
「시들한 잔치…《봄 국전》」, 『중앙일보』, 1977.4.25.
「김빠진 《봄 국전》」, 『신아일보』, 1977.4.25.
「지방 여건의 어려움 딛고, 《봄 국전》 특선한 부산 사진작가 3명」, 『부산일보』, 1977.4.27.
「미술계에 《국전》 개혁론」, 『동아일보』, 1977.4.30.
「《봄 국전》과 《국전》 회의론」, 『동아일보』, 1977.5.6.
「《봄 국전》을 보내며」, 『조선일보』, 1977.5.19.
「문공부 《국전》 통합 검토」, 『동아일보』, 1977.5.20.
「제도를 넘어선 문제, 또 흔들리는 《국전》에의 제언」, 『부산일보』, 1977.5.22.
「미술계에 '《국전》 통합론'」, 『경향신문』, 1977.5.23.
「원점으로 돌아간 《국전》」, 『국제신문』, 1977.5.24.
「가장 초라한 《봄 국전》, 일반공개 폐막」, 『조선일보』, 1977.6.4.
「한눈에 볼 '《국전》 27년'」, 『동아일보』, 1977.9.16.
「갈수록 떨어지는 《국전》 수준」, 『조선일보』, 1977.9.23.
「《국전》 발자취를 한눈에, 《역대수상작전》」, 『중앙일보』, 1977.11.30.
「의욕적이고 뜻 깊은 전시 주목 끈 《국전 역대수상작품전》」, 『경향신문』, 1977.12.8.
「역대 《국전수상작품전》」, 『경향신문』, 1977.12.17.
「양(量)만 풍성-질(質)은 기형적 젊은 작가 중심 '미술제' 특징 보여」, 『경향신문』, 1977.12.21.
「정부, '역대 《국전》 수상 작품' 구입 준비 작업에 열 올려」, 『경향신문』, 1978.1.17.
「《봄 · 가을 국전》 개최 문공부 일자 확정」, 『매일경제』, 1978.3.4.
「《봄 국전》 유감」, 『중앙일보』, 1978.4.22.
「(사설)《국전》의 변모」, 『서울신문』, 1978.4.25.
「대통령상 못 고른 《봄 국전》」, 『경향신문』, 1978.4.25.
「《국전》 제도 개선할 점 많다」, 『서울신문』, 1978.5.2.
「(오늘의 눈) 허전한 《봄 국전》」, 『서울신문』, 1978.5.2.
「덕수궁서 월말까지 《봄 국전》 개막」, 『동아일보』, 1978.5.2.
「(기자의 눈) 그림 없어 쓸쓸한 《봄 국전》」, 『한국일보』, 1978.5.4.
「초라한 《제27회 봄 국전》, 점점 멀어져가는 일반의 관심」, 『조선주간』, 1978.5.7.
「《국전》 전시 작품 58점 도난 휴일 새벽」, 『동아일보』, 1978.11.20.
「(미술)《국전》심사 누가 얼마나 했나」, 『조선일보』, 1979.4.20.
「대통령상 건축 유희준 씨 《28회 봄 국전》」, 『경향신문』, 1979.4.21.
「(미술)《국전》 인식이 달라졌다, 기성 참여로 '발전' 기대, 건축 부문 대통령상 18년만의 경사」, 『조선일보』, 1979.4.22.
「《봄 국전》의 심사 공개 쾌거…대통령상은 만장일치로」, 『경향신문』, 1979.4.23.
「《봄 국전》의 새로운 경향」, 『중앙일보』, 1979.4.23.
「(전망)《국전》 이대로 좋은가」, 『동아일보』, 1979.4.23.
「《국전》에서 민전으로」, 『동아일보』, 1979.9.22.
「《국전》 진로 싸고 '의견' 만발」, 『조선일보』, 1979.10.20.
「79년 《봄 국전》에서 문공장관상을 획득한 사진 부문의 〈옛 솜씨〉(곽수돈 작)」, 『경향신문』, 1979.12.24.
「설왕설래 속 공증에 뜬 《국전》」, 『경향신문』, 1980.1.14.
「《국전》 개혁안, 대통령상 없애고 부문별 대상제로」, 『경향신문』, 1980.1.26.
「'《국전》 개혁'에 거는 기대」, 『경향신문』, 1980.1.28.
「'새 《국전》'은 어디로…운영 싸고 문예진흥원 · 미술인 의견 대립」, 『동아일보』, 1980.1.29.
「《봄 국전》5월 1일부터 7개 부문 기성 초대전으로 민전 따른 사단법인 곧 발족」, 『경향신문』, 1980.2.2.
「(십자로)진흥원, 《국전》 진로 빨리 밝혀야」, 『조선일보』, 1980.2.5.
「《국전》 공모전으로 환원, 문예진흥원 운영위서 결의」, 『경향신문』, 1980.2.6.
「《국전》 운영 갈팡질팡」, 『동아일보』, 1980.2.6.
「새로움 없는 '새 《국전》'」, 『동아일보』, 1980.2.7.
「문공부가 밝힌 80년 문화예술 시책 각종 문예사업 민간 주도로」, 『경향신문』, 1980.2.12.
「《봄 국전》 작품심사 공개 실시 모두 1,186점」, 『경향신문』, 1980.4.22.
「《봄 국전》 4개 부문 대상, 최오실(서예) 안미형(공예) 이창남(사진) 정옥기 이경돈 조용우 씨(건축 부문)」, 『경향신문』, 1980.4.23.
「《봄 국전》 부문별로 대상」, 『동아일보』, 1980.4.23.
「《제29회 봄 국전》」, 『조선일보』, 1980.4.24.
「(여적(餘滴))」, 『경향신문』, 1980.4.24.
「《제29회 봄 국전》 입상자 발표 대상 4 · 특선작 29점발표」, 『매일경제』, 1980.4.24.
「오는 1일 《봄 국전》 현대미술관서 개막」, 『경향신문』, 1980.4.26.
「새 맛 없는 민영 '《국전》'」, 『경향신문』, 1980.4.28.
「(화랑가) 1일부터 《봄 국전》 개막」, 『매일경제』, 1980.4.30.
「각 부문 대상4 · 특선작 27점에 《29회 봄 국전》 시상식 가져」, 『매일경제』, 1980.6.3.
「"한다""안 한다" 논란 매듭 '《봄 국전》 개최하기로」, 『동아일보』, 1981.3.6.
「《봄 국전》…5월 22일부터 25일간」, 『동아일보』, 1981.3.10.
「《봄 국전》 5월 22일에, 출품 마감은 5월 9일」, 『경향신문』, 1981.3.10.
「올 《봄 국전》 5월 22일부터」, 『매일경제』, 1981.3.13.
「(심사평)'필연에 의한 작품 제작' 결의 부족」, 『동아일보』, 1981.5.16.
「(문화) 《30회 봄 국전》 입상작 발표 / 대상 수상자 인터뷰」, 『조선일보』, 1981.5.17.
「《봄 국전》 빛낸 영예의 얼굴들 4개 부문 대상 수상자 인터뷰」, 『경향신문』, 1981.5.18.
「이은주 작 〈환희〉 대상 《제30회 봄 국전》 사진 부문」, 『매일경제』, 1981.5.19.
「문공부 확정 《국전》 신인공모전으로 개편, 명칭 《대한민국미술대전》」, 『동아일보』, 1982.1.16.
「(해설) 33년만의 탈바꿈 새 모습으로 개편되는 《국전》」, 『동아일보』, 1982.1.16.
「막 내린 30년 《국전》, 사진은 마지막이 된 81년 가을 《국전》 개막식」, 『동아일보』, 1982.1.16.
「올해부터 개선 공개심사 · 매입상제로 《국전》을 신인공모전으로」, 『경향신문』, 1982.1.16.
「30년의 숙제…《국전》 대수술 개혁의 의의」, 『경향신문』, 1982.1.16.
「《국전》 30년 일지」, 『경향신문』, 1982.1.16.
「《국전》 개혁은 잘 한 일」, 『매일경제』, 1982.1.18.
「'《국전》' 개혁」, 『동아일보』, 1982.1.18.
「화제와 말썽과…《국전》 33년」, 『동아일보』, 1982.1.18.
「《국전》 역대 대통령상 · 대상 수상자」, 『동아일보』, 1982.1.18.
「《국전》 연혁」, 『동아일보』, 1982.1.18.
「제도개혁에 거는 기대 전문가 대담, 새 《국전》 운영양식에 달렸다」, 『동아일보』, 1982.1.18.
「《국전》 개혁의 참뜻-문화예술도 자생 능력 길러야」, 『경향신문』, 1982.1.18.
「"새 《국전》은 작품 위주로" 운영은 이렇게-미술계의 의견」, 『경향신문』, 1982.1.19.
이일, 「막 내린 '《국전》 우산 시대'」, 『동아일보』, 1982.1.19.
「《사진대전》 운영방향 토의, 사협, 공청회 열어」, 『매일경제』, 1982.2.1.
「사진협회 이정강 이사장 《대한민국사진전》 준비」, 『경향신문』, 1982.2.16.
「'《대한민국사진전》' 7월 10일부터 개최」, 『동아일보』, 1982.2.17.
임응식, 「(나의 비망록) 렌즈에 담은 소명(36), 국전 사진 부문 신설」, 『부산매일』, 1991.10.22.

월간지 / 계간지

김영주, 「미술인의 양식에 호소함-《국전》분규'에 제언하면서」, 『신미술』, 1956.11.
「'《국전》 사진부'가 설치되기까지」, 『주간한국』(제3호.), 1964.10.11.
「(뉴스와 화제-미술)《제13회 국전》의 결산」, 『신동아』, 1964.12.
「(뉴스와 화제-미술)《국전》 주변」, 『신동아』, 1965.11.
「(뉴스와 화제-미술)《국전》의 권위」, 『신동아』, 1966.11.
이일, 「《국전》의 비현실화」, 『세대』, 1966.12.
박서보, 「《국전》 중지론」, 『세대』, 1967.2.
임응식, 「《국전》을 정상화 하자」, 『포토그라피』, 1967.7-8.
이구열, 「《국전》은 왜 해마다 말썽인가: 권위구조의 발자취」, 『신동아』, 1967.10.
「(뉴스와 화제-미술)《국전》 안팎」, 『신동아』, 1967.11.
「(뉴스와 화제-미술)《국전》의 국전(局轉)」, 『신동아』, 1968.10.
「(사단 뉴-스)《제17회 국전》」, 『포토그라피』, 1968.10-11.
「(문화단평-미술)《국전》과 매스콤-신문지상의 '《국전》'전(展)」, 『월간중앙』, 1968.11.
박서보, 「《국전》의 검은 백서」, 『월간중앙』, 1968.11.
「(뉴스와 화제-미술)《국전》 병인(病因)의 소재(所在)」, 『신동아』, 1968.11.
허천, 「우리나라 《국전》에 대한 소고」, 『국회보』, 1968.11.
「《제17회 국전》에서」, 『포토그라피』, 1968.12.
「(사단 뉴-스) 김종헌 씨 《국전》 추천작가」, 『포토그라피』, 1968.12.
「(뉴스와 화제-미술)《국전》개혁 건의」, 『신동아』, 1969.1.
「(뉴스와 화제-미술) '민전'의 향방」, 『신동아』, 1969.2.
「(사진계 소식)《대한민국미술전람회》」, 『포토그라피』, 1969.8.
이일, 「(공간시평-미술)《국전》의 행방은 과연 어디로」, 『공간』, 1969.9.
「(뉴스와 화제-미술) 국립현대미술관과 《국전》」, 『신동아』, 1969.10.
이경성, 「(공간시평-미술) 국립현대미술관」, 『공간』, 1969.10.
「(사진계 소식)《제18회 국전》 소식」, 『포토그라피』, 1969.11.
이일, 「《국전》의 정체와 행방」, 『사상계』, 1969.11.
이경성, 「(원색 화보 해설)《제18회 국전》」, 『신동아』, 1969.12.
이명동, 「(뉴스와 화제)《국전》 사진부의 존폐」, 『신동아』, 1970.1.
남관, 조연현, 「(대담)《국전》에의 새로운 기대-'《국전》제도연구위'의 성격과 문제점」, 『예술계』, 1970.7(여름호).
「(문화단평-미술) 연례 《국전》 시비-《국전》 운영위원회」, 『월간중앙』, 1970.9.
이성수, 「(오늘의 맥박 ⑤) '《국전》' 개편의 시시비비」, 『신동아』, 1970.9.
「(뉴스와 화제-미술)《국전》개혁안과 운영위원」, 『신동아』, 1970.9.
오광수, 「(뉴스와 컬럼-미술계)《국전》제도개혁의 뒷면」, 『예술계』, 1970.10(가을호).
이일, 「《국전》의 어제와 오늘」, 『세대』, 1970.10.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 사진이 제외된 《국전》」, 『신동아』, 1970.12.

오광수, 「(뉴스와 컬럼-미술계)《국전》과 기구개혁」, 『예술계』, 1970.12(겨울호).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제1회 건축 및 사진전》」, 『신동아』, 1971.3.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 통합되는 사단」, 『신동아』, 1971.8.

이명동, 「(원색화보 해설)《대한민국 사진 및 건축 전람회》」, 『신동아』, 1971.10.

윤주영, 「《제1회 건축 및 사진 국전》을 열면서」, 『포토그라피』, 1971.10.

김희춘, 「심사소감/《국전》 수상자 및 입선자 명단」, 『포토그라피』, 1971.10.

「《국전》 전시 작품」, 『포토그라피』, 1971.10.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 새 '《건축 사진전》'」, 『신동아』, 1972.4.

「(사진계 소식)《제2회 사진 국전》 마감 심사위원 결정」, 『포토그라피』, 1972.9.

「(사진계 소식)《제2회 건축 및 사진 국전》 입상 및 입선작가 명단」, 『포토그라피』, 1972.10.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 칼라사진의 작품성」, 『신동아』, 1972.11.

「(사진계 소식)《제3회 사진 국전》 소식」, 『포토그라피』, 1973.8.

「(사진계 소식)《제3회 건축 및 사진 국전》」, 『포토그라피』, 1973.9.

「《제3회 건축 및 사진 국전》에서」, 『포토그라피』, 1973.10.

「《제3회 건축 및 사진 국전》에서」, 『포토그라피』, 1973.11.

「(뉴스와 화제-미술)《국전》의 구상 비구상 분리」, 『신동아』, 1973.11.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 작품 빈곤과 사단 침체」, 『신동아』, 1973.11.

「(뉴스와 화제-미술)《국전》과 기록화」, 『신동아』, 1973.12.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복수사진의 개발 문제」, 『신동아』, 1973.12.

「(사진계 소식)《제23회 국전》개최 요강」, 『포토그라피』, 1974.3.

「(뉴스와 화제-미술) 제1차 중흥계획」, 『신동아』, 1974.3.

「(사진계 소식)《제4회 건축 및 사진 국전》 소식」, 『포토그라피』, 1974.4.

「(사진계 소식)《제23회 봄 국전》 심사 결과 발표」, 『포토그라피』, 1974.5.

「《제23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제4부 사진 부문 입상 및 입선작 중에서」, 『포토그라피』, 1974.5.

「《제23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제4부 사진 부문 입상 및 입선작 중에서」, 『포토그라피』, 1974.6.

「(뉴스와 화제-미술)《국전》 분리와 재야작가 포섭」, 『신동아』, 1974.6.

이경성, 「《국전》 그 역사와 허실」, 『세신』, 1974.10.

「《제24회 국전》 출품 요령」, 『포토그라피』, 1975.3.

「(뉴스와 화제-미술)《국전》 개최 공고」, 『신동아』, 1975.3.

「《제24회 국전》 심사발표」, 『포토그라피』, 1975.5.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봄 국전》의 문제점」, 『신동아』, 1975.6.

「《제24회 국전》에서」, 『포토그라피』, 1975.6.

유준상, 「이달의 미술: 《국전》과 나와 우리: 예술은 개성의 자율적 발전을 바탕으로」, 『세대』, 1975.6.

「《제24회 국전》에서(2)」, 『포토그라피』, 1975.7.

「《제24회 국전》에서(3)」, 『포토그라피』, 1975.8.

이일 외, 「《국전》: 지금대로 좋은가 〈좌담〉」, 『공간』, 1976.3.

「(사진계 소식)《제25회 국전》 개최공고」, 『포토그라피』, 1976.3.

이일, 「《국전》 공개심사제가 제기하는 것」, 『공간』, 1976.5.

「(뉴스와 화제-미술)《국전》 운영위 개편」, 『신동아』, 1976.5.

「《제25회 국전》에서」, 『월간사진』, 1976.6.

「《제25회 국전》 사진 부문 안청, 최홍만」, 『영상』, 1976.6.

「(뉴스와 화제-미술)《국전》 공개심사」, 『신동아』, 1976.6.

이홍우, 「(사랑방)《국전》 심사는 《국전》 작가만이 해야 하는 편파성」, 『공간』, 1976.10.

「(특집)《국전》 초대작가 8인선: 김조현, 이건중, 이경모, 이해선, 임응식, 이형록, 정인선〔성〕, 조현두」, 『영상』, 1977.1.

오광수, 「미술: 《국전》운영제도의 개혁」, 『세대』, 1977.3.

「(사진계 소식)《제26회 (봄) 국전》 수상작 발표」, 『월간사진』, 1977.5.

이일, 「미술: 《국전》의 '재통합론'이 의미하는 것」, 『공간』, 1977.6.

「《국전》 수상작품」, 『월간사진』, 1977.7.

「《26회 국전》 사진 입선 중에서」, 『영상』, 1977.7.

유근준, 「미술: 초라한 《봄 국전》」, 『세대』, 1977.7.

이구열, 「평론가의 참여와 《국전》 제도의 한계」, 『공간』, 1977.10.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동아민전》의 시발」, 『신동아』, 1977.11.

정중헌, 「르뽀: 《국전》이 걸어온 길」, 『화랑』, 1977.12(겨울호).

「좌담: 《국전》, 무엇이 문제인가」, 『화랑』, 1977.12(겨울호).

오광수, 「(뉴스와 화제-미술)《역대 국전 수상작품전》」, 『신동아』, 1978.2.

「(사진계 소식)《제27회 봄 국전》 입상 및 입선작 선정」, 『월간사진』, 1978.5.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연륜이 부끄러운 《사진 국전》」, 『신동아』, 1978.6.

「《제27회 국전》 입상작」, 『월간사진』, 1978.6.

「《제27회 국전》에서」, 『월간사진』, 1978.7.

「(특집)《제27회 국전》 작품」, 『영상』, 1978.7.

「《제27회 국전》에서」, 『월간사진』, 1978.8.

변종하, 유준상, 「대담: 오늘의 문제-《국전》과 민전」, 『화랑』, 1978.12(겨울호).

박용숙, 「(뉴스와 화제-미술) 민전의 대두와 극사실주의 경향의 78년」, 『신동아』, 1979.2.

「《제28회 국전》 작품모집」, 『영상』, 1979.4.

「《제28회 봄 국전》에서」, 『월간사진』, 1979.5.

「(사진계 소식)《제28회 봄 국전》 문화공보부장관상에 곽수돈 씨」, 『월간사진』, 1979.5.

「《제28회 봄 국전》에서」, 『월간사진』, 1979.6.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봄 국전》 사진 부문을 보고」, 『신동아』, 1979.7.

「《28회 국전》 입선작품2: 『영상』추천작가/최기용: 김유성」, 『영상』, 1979.7.

박용숙, 「(뉴스와 화제-미술)《국전》과 《대한미술원전》」, 『신동아』, 1979.12.

「(사진계 소식)《국전》 운영위원 사진 부분 박필호, 이경모 선생 선출/《국전》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선출」, 『월간사진』, 1980.3.

「《국전》소식-사진 부문 운영위원에 《국전》초대작가 박필호, 이경모 양씨를 선임」, 『영상』, 1980.4.

「(사진계 소식)〔《제29회 봄 국전》 심사결과〕」, 『월간사진』, 1980.5.

이일, 「민전의 과제: 그 허와 실」, 『화랑』, 1980.6(여름호).

「《제29회 국전》 초대작 대상 특선작에서」, 『월간사진』, 1980.6.

「《국전》 출품작 소개」, 『영상』, 1980.6.

「《제29회 국전》 수상자 소개」, 『영상』, 1980.6.

「《국전》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의 출품과 심사 회수 집계」, 『영상』, 1980.6.

「《제29회 국전》 출품작 운영위원 초대작가」, 『영상』, 1980.7.

「《국전》 출품작3: 최홍만, 권진희」, 『영상』, 1980.8.

「바로잡습니다〔1980년 7월호 《국전》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의 출품과 심사 회수 집계 정정〕」, 『영상』, 1980.8.

김인환, 「(뉴스와 화제-미술) 또다시 《국전》을 이야기 한다」, 『신동아』, 1980.12.

「(사진계 소식) 81년도 《국전》(사진 부문)개최 5월 22일부터 6월 15일까지」, 『월간사진』, 1981.5.

「(사진계 소식) 81년 《봄 국전》 사진부」, 『월간사진』, 1981.6.

「《국전》 초대작가 작품」, 『월간사진』, 1981.6.

「《국전》 입상작품」, 『월간사진』, 1981.7.

「《국전》 작품소개」, 『영상』, 1981.7.

박재능, 「월평5: 《국전》 탐방」, 『영상』, 1981.7.

김영희, 「《국전》 대상 작품소개 〈환희〉 이은주」, 『영상』, 1981.7.

박재능, 「(사단시감) 시대의 흐름을 실감한다」, 『영상』, 1982.3.

「(사진계 소식)《제1회 대한민국 사진전》 7월 9일부터 전시대상 1점만 매입」, 『월간사진』, 1982.5.

「《국전》 작품 중에서」, 『월간사진』, 1982.8.

「《제1회 국전》 소감」, 『월간사진』, 1982.8.

「《제1회 국전》 입선작 중에서」, 『월간사진』, 1982.9.

이태호, 「관전의 권위, 그 양지와 음지」, 『계간미술』, 1985.6.

원동석, 「숨가빴던 한국미술 반세기」, 그 순간들, 『가나아트』, 1995.3-4.

이규일, 「서울대파 홍대파 만들어낸 장발과 윤효중-1955년 한국미술가협회 발족을 전후로 한 헤게모니 싸움」, 『가나아트』, 1995.3-4.

이규일, 「울지도 웃지도 못할 《국전》 심사의 흑막」, 『가나아트』, 1995.3-4.

최석태, 「말썽 많은 《국전》의 폐지와 각종 민전의 창설」, 『가나아트』, 1995.3-4.

「해방 50년 한국미술계 주요사건 연표」, 『가나아트』, 1995.3-4.

단행본

대한민국예술원 편, 『한국예술총람-자료편』, 예술원사무국 편, 1965.

한국사진협회, 『1976년 한국사진연감』, 1976.

국립현대미술관, 『역대국전자료집 1회-26회』, 바른손, 1977.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연감』, 1977.

국립현대미술관 편저, 『한국현대미술사: 사진』, 동화출판공사, 1979.

한국근대미술연구소, 『국전30년』, 수문서관, 1981.

오광수, 『한국현대미술사: 1900년 이후 한국미술의 전개』, 열화당, 1989.

이경성, 『어느 미술관장의 회상』, 시공사, 1998.

최열,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한국미술사사전 1945-1961』, 열화당, 2006.

예술의 전당 편, 『1970년대 한국미술: 국전과 민전』, 예술의 전당, 2007.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한국미술공모전의 역사』,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2014.

국가기록물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정(대통령령) 제정」(문예술1062.1), 『제13회국전철』, 1964.8.24.
윤천주 문교부장관,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전시작품 심사위원회 규정(안)」, 1964.10.5.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제13회 국전》 불참 위원 해촉」, 『제13회국전철』, 1964.10.15.
공보부, 「문교부령 제632호(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정)」, 『관보』(제3870호), 1964.10.23.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제1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 위촉」(문예술1062.1-360), 『제15회국전철』, 1966.9.27.
_____, 「제13회 국전 사진부 지방 순회전시 청원에 관한 승인 건」(문예술1062.1-507), 『제13회국전철』, 1964.11.6.
_____, 「국전 심사 종합 보고」(문예술1062.1), 『제15회국전철』, 1966.10.7.
국전추천작가, 「국전 개혁을 위한 건의서」, 『제17회국전철(2)』, 1968.11.25.
이석제 총무처장관,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전시작품 심사위원회 규정 중 개정의 건(안)」, 1968.12.21.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제18회 국전 관계 사진 제1회 건축사진전 사진」, 『제18회국전철(1)』, 1969.
공보부, 「대통령령 제3,724호(대한민국미술전람회 전시작품 심사위원회 규정 중 개정의 건」, 『관보』(제5142호), 1969.1.9.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정 개정」, 『제18회국전철(1)』, 1969.6.14.
공보부, 「문화공보부령 제12호(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정 개정령)」, 『관보』(제5288호), 1969.7.2.
이석제 총무처장관,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전시작품 심사위원회 규정 폐지령(안)」, 1969.9.29.
공보부, 「대통령령 제4,172호(대한민국미술전람회 전시작품 심사위원회 규정 폐지령」, 『관보』(제5378호), 1969.10.23.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국전 제도 개선」(예술1062-), 『제19회국전철(1)』, 1969.11.28.
_____, 「국전제도연구위원회 개최」(예술1062-), 『제19회국전철(1)』, 1969.11.28.
_____, 「국전제도개선연구위원회 위원 추천」(예술1062-19151), 『제19회국전철(1)』, 1969.12.2.
_____, 「국전에서 사진부 분리」(예일1060-16657), 『제19회국전철(1)』, 1970.
_____, 「국전 제도 개선」(예술1060-), 『제22회국전철』, 1973.5.18.
_____, 「국전 제도 개선작업 결과보고」(예술1060-), 『제22회국전철』, 1973.12.29.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국전》 심사결과 보고」, 『제23회국전철(1)』, 1974.4.22.
심흥선 총무처장관,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운영위원회 규정(안)」, 1974.4.30.
공보부, 「문화공보부령 제45호(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정 중 개정령)」, 『관보』(제6985호), 1975.2.28.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국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2, 4부) 합동회의 결과보고」(예술1060-), 『제24회국전철(2)』, 1975.4.19.
_____, 「제24회 국전(제2부, 4부) 종합 결과보고」, 『제24회국전철(4)』, 1975.6.23.
_____, 「제25회 국전(제2부, 제4부) 작품심사 결과보고」(예술1060-6067), 『제25회국전철(1)』, 1976.4.27.
_____, 「진정서에 대한 회신」(예술1060-7022), 『제25회국전철(2)』, 1976.5.14.
_____, 「진정서에 대한 회신」(예술1060-7023), 『제25회국전철(2)』, 1976.5.14
_____,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정 개정」(예술1060-), 『제26회국전철(1)』, 1977.1.17.
공보부, 「문화공보부령 제56호(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정 중 개정령)」, 『관보』(제7570호), 1977.2.9.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제26회 봄국전 작품심사 결과보고」(예술1060-), 『제26회국전철(1)』, 1977.4.25.
문화공보부, 「작품구입 현황 및 소재 통보」(예술1060-), 『국전 수상작품 관리전환』, 1978.11.16.
_____, 「제27회 봄국전 작품심사 결과보고」(예술1060-), 『제27회국전철』, 1978.4.21.
_____,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칙 중 개정령 공포」(법무182-), 『제27회국전철』, 1978.8.29.
공보부, 「문화공보부령 제64호(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칙 중 개정령)」, 『관보』(제8040호), 1978.9.1.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제28회 봄국전 심사결과 보고」, 『제28회국전철』, 1979.4.20.
공보부, 「문화공보부령 제68호(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정 폐지령)」, 『관보』(제8418호), 1979.12.10.